May You Be Strengthened by this Anointed message of the Past!

Art Rorheim [Awna Founder}

AWANA LEADER - do you really believe that teaching and presenting the word of God to boys and girls pays big dividends? The Bible says it does. Is it just figuratively speaking, or is it really so? I am sure Satan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casting doubt in this area. Can you remember the night at club when everything seemed to go wrong? Several leaders didn't show up the bus broke down on a cold, zero night. Most of the club members came with their batteries fully charged, consequently disorder was at an alltime high.

Spiritually you felt that virtually nothing was accomplished, and inwardly, you asked yourself the question, "Is it really worth it?" Then God remindes us, "Yes, it is." He has made a promise that He will belss the giving out of His Word. It wi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lease, and it shall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I send it." God always honors faithfullness, and reminds us that our labor is never in vain, in the Lord.

God proved this to me again just a few weeks ago. I received a phone call. To my utter surprise it was from a man who had attended Pals as a boy, 22 years ago. His first words were, "Do you remember me?" I could never have forgotten him, because he was my main discipline problem. Not mean at all, but loaded with an over abundance of energy. He said it was urgent to see me and his former pastor.

We met and he told this story: Every since I left Pals 22 years go, I have been running away from God. I have travelled all over the world. While I was in the service, I have seen mem blown to bits, all around me, and God had wonderfully spared my life.

I have tried every conceivable sin to satisfy the void in my life. I became more desperate than ever. In my despair, I procured the advise of a leading psychiatrist. His final diagnosis was this: "Go back to where you started as a boy." He said that has known this for 22 years, but now he was fully persuaded. He decided to go back. He said, "So here I am. I want God to use my life. I want to go Bible school so that I can be a more effective witness. I have a family of three children who, too, need the Bible training that I got as a boy."

If you had been his club leader, back there 22 years ago, you would never have suspected that the word of God was making the slightest impression on his life. How wrong we were. When the most discouraging moments come your way as a club leader, look beyond the circumstances and believe God's Word for you. He has promised to fufill it. Eccelesiates 11:1, "Cast thy bread upon the waters: for thou shalt find it after many days."

(Art Rorheim, Awana Founder, from November 1964 Signal Magazine)

Signal 매거진 1964년 9월호
Director's Column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알트 로하임은 국제 어와나의 설립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큰 상급이 따른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러할까요?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와나 클럽에서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저녁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교사들은 영하 16도인 어느 밤에 버스가 타고 가던 고장나 버리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클럽원들이 너무 들떠있어서 결국 클럽시간 내내 전혀 정돈이 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일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느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몇 주전 저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는 22년 전 소년 시절 Pals에 클럽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였습니다. 저는 그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훈육하는 것이 저의 주된 고민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저와 예전 목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2년전 Pals를 떠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 목숨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헛된 삶을 만족시키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저질러왔습니다. 그 정도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권고 받았고 그는 제게 "소년시절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22년전 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완전히 설복된 것입니다. 그는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학교에 가서 제가 좀더 나은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제가 어릴 때 성경으로 훈련 받았던 것처럼 훈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22년 전 그의 교사였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계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어러분이 클럽 교사로서 가장 낙심한 순간 주어진 환경 그 너머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1 말씀입니다.